

북한 군수산업의 재도약? 대외 수출의 기회와 핵-상용무력의 병진

전경주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kijeon@asaninst.org.

I. 서론

북한의 군수산업은 휴전 이후 크게 활성화됐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침체기를 맞았다가 다시 재도약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2021년 무렵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체제 형성 초기부터 가용 자원의 과도한 몫을 군수 부문에 고착시켰다. 당시 군수산업은 소련과 중국으로 부터의 기술 도입과 무기의 모방 및 개량에 의존하였고, 북한의 자체 요구량 충족 외에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에 수출하면서 외화 획득의 통로로도 기능했다. 그러나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북한이 생산할 수 있는 무기체계는 대체로 1970년대의 기술 수준에 멈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북한산 무기체계의 실용성과 상품성은 매우 낙후한 수준이었다.

더욱이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역설적으로 전반적인 군수산업의 침체를 더욱 재촉했다.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는 핵과 미사일에 치우쳐졌고, 미사일을 제외한 다른 재래식 무기 부문의 개발과 생산은 자연스럽게 후순위로 밀려났다(조남훈, 2019). 다만, 김정은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군수공장의 현대화를 강조하는 시도가 있었다(조남훈, 2020). 현대화의 핵심은 ‘공장의 과학화, 정보화, 자동화 및 무인화’로서 생산주기 단축과 생산량 확대가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때 북한이 추구한 것은 군수공장의 전반적 발전보다는 중요 무기체계 생산, 즉 미사일 생산과 관련된 군수공장들의 발전에 집중하는 것이었다.

핵개발에 따른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는 군수산업의 침체를 고착화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했다. 2006년 제1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

(2006. 10)를 시작으로 제2397호(2017. 12)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무기 수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군수산업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 기술, 금융 등의 유입을 차단하였다.¹⁾ 이로써 북한 군수산업은 합법적 무기 수출 시장과 수입 경로를 상실한 셈이 됐다. 공작기계, 정밀부품, 전자소자 등 군수공장 생산 고도화에 필수적인 자본재의 도입 경로 역시 봉쇄되거나 비공식 또는 불법 조달망에 의존하는 고비용 구조로 전락하였다.

이처럼 핵미사일이라는 비대칭 전력에 집착해 온 북한 군수산업의 침체는 재래식 전력의 실태에 그대로 투영되었다. 북한 지상군의 주력 전차와 장갑차, 공군의 전투기, 해군의 수상함 다수는 도입 또는 생산 이후 수십 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되었으며, 연료와 자재 부족은 생산 공장의 가동을 제약해 왔다. 신형 장비의 양산·배치가 부진한 가운데 기존 장비의 수리와 부분 개량으로 전력을 유지하는 방식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한국군과의 재래식 전력 격차는 질적 측면에서 갈수록 확대되었다. 북한이 핵미사일이라는 비대칭 전력에 집착해 온 것은 바로 이러한 재래식 열세를 상쇄하기 위한 선택이었으나, 그 선택은 역설적으로 전반적인 군수산업의 발전을 더디게 했다.

하지만 2021년 제2차 공업혁명과 함께 맞이한 국제 정세의 변화는 북한 군수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발표한 계획은 여전히 핵미사일에 치우쳐진 핵-재래식 간의 불균등을 예고했지만, 직후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에 상용무력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발전의 동력을 제공하였다. 또한 해당 전쟁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주도한 전쟁이었기에, 규칙 기반 질서와 그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국제 제재의 무력화를 재촉했다. 더불어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에 보이콧함으로써,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대북제재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기도 했다.²⁾ 이러한 배경 속에서, 북한은 2026년 제9차 당대회를 통해 상용무력과 남부국경 방어를 위한 군사력 발전을 천명하였으며, 이는 북한 군수산업의 성장에 방향성과 내적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북한의 군수산업이 재도약을 맞이하도록 하는 ‘계기’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대내외적 여건, 즉 제8차 당대회와 북러 협력, 그리고 제9차 당대회 계획의 일부를 설명하고, 북한이 재도약에 성공할 것인지에 대해 전망하고자 한다.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최초의 대북제재는 결의안 제1695호(2006. 7)이지만, 금융 및 무역에 대한 내용이 부재했다. 1차 핵실험 이후 국제 제재가 본격적으로 강화되었다.

2) United Nations(2024).

II. 재도약의 계기와 방향성

1. 계기: 제8차 당대회와 북러 협력

북한은 2017년에 이미 제1차 국방공업혁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부터 ‘혁명’이라는 명칭을 통하여 기존의 국방(군수)공업에 대한 강조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발전을 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주요 내용은 2차 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2021년 당대회를 통하여 처음 공개되었다. 당시 국방공업혁명은 “최군사강국에로의 지름길을 마련하기 위한 주체적국방공업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 소개됐다.³⁾ 그 기본 골자는 “기존의 전쟁억제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자위를 위한 전략전술적 수단들의 개발생산을 더욱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때 북한은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국방공업혁명은 해당 계획의 이행을 위한 국가적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었다.

이어 2022년, 북한은 군수생산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에 대한 지속적인 추구를 통해 신규 무기체계 생산체계의 핵심인 군수공장의 질적 개선에 주력해 왔다.⁴⁾ 특히 김정은은 2022년 1월 ‘중요무기체계’를 생산하는 군수공장을 현지지도한 바 있다. 군수공장 방문을 공개한 것은 2019년 이후 3년 만인데, 그간에는 태성기계공장, 강계트랙터공장 등 군수물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주요 공장들을 현지지도하며 ‘기계,’ ‘트랙터’ 등 공장명을 밝혀 왔다. “군수공장”을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다(통일부, 2022). 이후 군수공장 현지지도에 대한 공개 보도는 현격하게 증가했다(홍민, 2024). 현지지도한 군수공장들은 재래식 무기와 전략무기를 생산하는 곳들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북한이 계획한 대로 무기 보유고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고, 억제는 물론 ‘전쟁 준비,’ 즉 실제로 전투 대비 태세에 기여할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능력도 꾸준히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려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2023년에는 북한이 러우 전쟁에 대한 무기 지원을 시작하고 러시아와 본격적으로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이것이 김정은이 군수공장을 챙기는 또 하나의 배경으로 인식되었다. 2023년 7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한 이후인 8월 이래 김정은은 주요 군수공장들을 현지지도 했고, 이를 과거에 비해 매우 상세히 보도했다.⁵⁾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수공장에 대한 현지지도 보도는 매우 드물었다. 한 해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3) 『조선중앙통신』(2021. 1. 28).

4) 『류경』(2022. 5. 7).

5) 『조선중앙통신』(2023. 9. 23).

보도하며 공장이 생산하는 무기와 그 생산 실태 및 방향성을 언급한 것은 2023년이 처음이었다. 대외적으로 북한의 무기 생산 동향을 알리려는 의도가 다분했다고 할 수 있다(홍민, 2023). 하지만 이러한 의도가 공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으며, 주로 북한군의 편제 및 작전계획 수요에 맞는 달성을 추구하여 자체적인 준비 태세를 강화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후 김정은의 군수공장 방문 보도는 이례적이기보다는 비교적 빈번한 군사활동 보도로 여겨지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러시아에 다양한 무기를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New York Times*(2025)는 북한의 대러 군수지원이 북한의 재래식 무기 산업이 르네상스 시대로 접어드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주로 공급했던 무기체계는 북한이 다량 보유하고 있으나 모두 노후화되어 성능 개선이 필요했던 것들로서, 전차와 장갑차, 곡산 170mm 자주포(M-1978, M-1989), 107mm, 240mm 다연장 로켓포, 화성-11형(KN-23) 계열을 포함한 단거리 탄도미사일,⁶⁾ 불새-4 대전차 미사일과 로켓 추진 수류탄(RPG) 대전차 로켓⁷⁾ 등이다. 북한은 이러한 무기체계를 러시아에 공급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계기로 성능 개선의 기회를 꾀했다. 러시아가 실전 데이터를 제공하여 북한의 무기 성능 개선에 기여하였으며, 이로써 성능이 개선된 무기를 추가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기 거래 외에, 군수공장 운영에 결정적인 유류 지원 역시 러시아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는 이를 위해 사실상 제재를 먼저 무력화했다. 2024년 3월 28일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문가 패널(Panel of Experts)의 임기를 연장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고,⁸⁾ 이때 13개국이 찬성, 중국이 기권, 러시아가 반대하였다.⁹⁾ 전문가패널은 제재 위반 사례를 조사 및 보고하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장에 찬성했던 국가들은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협력 및 제재 위반 의혹에 대한 독립적 감시를 차단하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러시아는 2024년 2월 이래 대북 정제유 공급 현황을 보고하지 않고 있다.¹⁰⁾ 2025년 한 해 동안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얻은 유류량은 규제 상한선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¹¹⁾

6) 2024년 1~12월 중에 공급한 것으로 추정된다(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 2025; Rinaldi, 2025).

7) 국정원(2024).

8) United Nations(2024), 상동.

9)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에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러시아의 반대 하나만으로도 결의는 통과되지 못한다.

10) UNSC 홈페이지(검색일: 2026. 7. 15).

11) '뉴시스'(2026. 6. 7).

2. 방향성: 상용무력 발전과 남북국경 요새화

앞서 설명한 제8차 당대회 계획과 북러 협력이 북한 군수산업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면, 제9차 당대회 계획은 재도약이 향한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제9차 당대회 때 제8차 당대회 때보다 훨씬 더 강하게 성과에 대한 만족과 상당한 자신감을 표출했다. 김정은은 개회사에서, 제8차 당대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고 획기적인 성과를 이룩하여 그 과정에 주체적인 힘을 비상히 제고”시켰다고 했다.¹²⁾ 특히 북한 당국은 북한군에 대해 “세계 최강의 군사력,”¹³⁾ “세계 최강의 자위력”¹⁴⁾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는 등 국방에 대한 매우 큰 자신감을 표현했고, 이어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군대,” “세계 최강의 현대화된 군대”¹⁵⁾로 되어야 한다는 높은 기대를 표현했다.

그러나 공개된 내용은 이러한 목표를 포괄하기에는 다소 개괄적이었다. 확실히 제9차 당대회의 국방 관련 계획은 무기체계 발전 계획을 중심으로 전략적 과업을 제시한 제8차 당대회 계획과는 크게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았고, 열병식에서 무기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군수산업에 대한 북한의 계획을 저평가할 수는 없다. 일부러 공개하지 않은 것이거나, 핵무기 건설에 집중하느라 충분히 보완하지 못했던 실제 전쟁 수행 능력 부분에 대하여 중장기적으로 내실을 기하는 시기로 결정한 것일 수 있다.

특히 제9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계획의 내용은 북한 군수산업의 재도약 없이는 불가능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2025년 9월에도 예고한 “핵무력과 상용무력의 병진”이다. 제9차 당대회 보도 내용에서 핵무력과 상용무력 “병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핵무력 강화와 동시에 “상용무기들을 위력한 무기들로 갱신”하는 사업이 있음을 다시 확인하였다. 이번 5개년 계획에서 밝힌 상용무력에 대한 발전은 주로 기존 무기체계의 개량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더욱 고도화된 기술의 장비와 부품들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공정 능력을 필요로 한다. 2026년 6월 취역한 최현호 보도에서 강조한 “함선공업혁명로선”은 이러한 능력의 추구가 이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¹⁶⁾

상용무력의 발전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주로 해상 및 공중 전력의 발전에 방점을 둘 것이며, 특히 전략자산으로서 핵무장화가 가능한 플랫폼들을 위주로 한 발전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앞서 언급한 최현호, 또는 북한이 언급한 “대륙간탄도미사

12) 『조선중앙통신』(2026. 2. 20).

13) 『조선중앙통신』(2026. 2. 23).

14) 『조선중앙통신』(2026. 2. 19).

15) 『조선중앙통신』(2026. 2. 26).

16) 『조선중앙통신』(2026. 6. 24).

일종합체'가 여기에 포함된다. 또 한 축으로서, 흔히 '재래식' 무력이라는 범주에 속해 있지 않으면서, 평시에도 운용하는 무기체계의 발전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재래식'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상용무력'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더 광범위한 비핵 무기를 포괄하기 위한 목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인공지능무인공격종합체," "적국의 위성을 공격하기 위한 특수자산," "전자전무기체계들," "더욱 진화된 정찰위성" 등이 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군수산업의 발전을 필요로 하는 또 하나의 제9차 당대회 내용은 남부국경선에 대한 요새화와 이와 관련된 경계체계와 화력체계들을 보강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 이는 '상용무력' 발전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유독 남부국경 방어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의미가 필요하다. 북한은 유독 한국에 대한 무기체계인 방사포만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 중 일부를 증정식을 통해 직접 선보였다. 그러면서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 배치하는 재래식 무기가 더 이상 노후된 방사포가 아니라 "가장 위력한 집조식초강력공격무기"임을 강조하였다.¹⁷⁾ 해당 무기체계는 제9차 당대회가 있기 전 시험 사격을 진행하기도 했는데,¹⁸⁾ 그때에도 공격력 측면에서 상당한 기술혁신을 이룬 것으로 선전하였다.

관련하여 북한은 2026년 상반기 동안 포탄과 총탄 생산에 주력하였음을 시사하는 보도를 낸 바 있고,¹⁹⁾ 이 중 일부는 "남부국경장거리포병부대"에 배치할 것임을 예고했다.²⁰⁾ 이후 2026년 6월 26일에는 남부국경 화력태세 변화에 관한 무력 건설 방침과 "자동화, 장거리화, 초정밀화"의 3대 원칙 실현을 언급하면서,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포 및 미사일 무력 현대화 사업 계획이 있음을 공개하였다.²¹⁾ 앞서 '상용무력'에 대한 강조가 주로 해상 및 공중에서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전력이나 기반이 될 수 있는 무기체계 등에 방점을 두었다면, 남부국경에 대한 강조는 지상에서 북한이 주력으로 사용해 온 지상 무기체계들의 첨단화와 양산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종합하면, 북한은 이전과는 크게 다른 보폭으로 상당히 다양한 무기체계의 발전을 동시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 설정은 그 자체로 북한의 군수산업 발전에 대한 상당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 군수산업 전반에 걸쳐서 양적으로뿐 아니라, 질적인 변화, 즉 현대화를 실제로 이루어야만 가능하다. 기술뿐 아니라 인력 관리까지 이루어져야 생산 효율화를 이룰 수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유류와 재원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북한 군수산업의 재도약은 가능할까?

17) 『조선중앙통신』(2026. 2. 19).

18) 『조선중앙통신』(2026. 1. 28).

19) 『조선중앙통신』(2026. 5. 8).

20) 『조선중앙통신』(2026. 5. 13).

21) 『조선중앙통신』(2026. 6. 26).

Ⅲ. 재도약, 가능할까?

북러 협력 이래로 군수공장의 활성화는 이미 상당히 가시적이다. 2024년에는 수출 물량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양강도 혜산시의 915공장과 혜산임업기계 분공장 등 지방 공장들에까지 152mm 포탄 탄체 생산공정이 새로 설치되고 생산과제가 하달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²²⁾ 2025년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등을 생산하는 평안북도와 자강도 일대의 주요 군수공장들이 24시간 가동체제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있었다.²³⁾ 또한 김규철·남진욱(2025)에 따르면 북러 협력이 개시된 이래 북한의 중화학공업 및 군수공업 중심 지역의 생산활동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북한이 보도한 바로는 포탄 생산량이 평년 수준의 4배로 증가했는데, 러시아에 수백만 발의 포탄을 보냈다는 오픈소스센터의 분석을 고려한다면, 아주 과장된 수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²⁴⁾

양적 증산과 함께 질적 개선이 동반되고 있다는 점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러시아가 사용하는 북한산 단거리 미사일의 명중률이 제고된 것과 같이,²⁵⁾ 러시아에 공급하고 있는 북한 무기의 질적 개선이 이를 방증한다. 북한이 이전까지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대형 다목적함의 건조 역시 북한 군수산업의 질적 개선을 시사한다. 무기 개발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전반에 걸쳐 러시아가 어느 정도 지원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북러 협력이 일어난 이래로 북한의 비핵 무기체계의 발전과 이를 뒷받침하는 군수산업의 성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관련하여 최근 북한이 제품 가공의 정밀도와 가공 속도를 강조하는 것, 제품 검수 공정체계의 현대성 제고를 강조하는 것 등도 주목할 대목이다.

더욱이 이러한 협력의 외연은 러시아를 넘어 권위주의 진영의 무기 공급망 전반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인다. 북한은 러시아, 이란과 함께 이른바 ‘권위주의 국가들의 무기고(Arsenal of Autocracy)’로 지칭되는 무기 공급망의 핵심 행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Corrado and Garlauskas, 2024). 제재가 무력화된 현재의 여건은 이들에게 특별히 더욱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중국으로부터 소재/부품/장비를 수입하고 러시아로부터 기술/유류/외화를 제공받으면서, 북한은 자국의 공장과 노동력을 제공하는 삼각 분업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러시아 타타르스탄 알라부가 특별경제구역의 드론 생산시설과 북한 구성시 방현비행장 일대의 무인기 관련 시설이 연계 거론되는 데서 보듯, 협력은 완제품 거래를 넘어 생산공정의 효율화와 무기체계 공동 생산의 방향으로 심화될 소지가 있다.

22) 『자유아시아방송』(2024. 7. 26).

23) 『데일리NK』(2025. 3. 4).

24) 『서울경제』(2025. 5. 8).

25) 『연합뉴스』(2026. 6. 21).

북한으로서는 이러한 공급망 참여를 통해 무기 수출을 활성화하여 군수산업의 재도약을 추구할 기회를 모색하고자 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 전반적인 상용무력 발전과 남북국경 방어태세 강화를 이루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도약은 몇 가지 극복해야 할 장애물 앞에 놓여 있다. 첫 번째 장애물은 전력 수급을 비롯한 산업 기반의 취약성이다. 첨단장비의 경우에는 기술력이나 인력이 가장 결정적인 도전 요인이겠지만, 군수산업 전반에 걸쳐 북한이 다른 국가에 비해 특별히 취약한 부분은 전력 수급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1월부터 2025년 10월 사이 북한 178개 시군구의 야간조도 변화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해당 기간 야간조도는 평균 25.9% 증가하였고, 전통적 군수지역이 전력 공급의 우선순위에 있음이 확인되었다.²⁶⁾ 그러나 이는 뒤집어 보면 군수공장에 대한 우선적인 전력 공급이 여타 부문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만성적인 전력 부족과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는 군수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첨단화의 발목을 잡는 구조적인 제약 요인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장애물은 선택적인 기술 이전에 따른 문제다. 러시아가 북한과 무기 협력을 강화했고, 이로써 북한이 전에 없는 재래식 무기 발전을 추구하고 있지만, 북한이 제8차 당대회 5개년 계획의 미완 과제 달성을 위해 필요로 했던 재진입 기술, 다탄두 각개유도(MIRV), 핵잠수함, 정찰위성 등과 관련한 첨단 기술은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자체적인 원천기술 축적이 제한적이고, 외부 기술의 이전과 모방에 크게 의존해 온 군수산업 구조는 질적 도약에 있어 본질적인 제약을 안고 있다. 더욱이 북한이 자력으로 군사강국 또는 과학기술강국의 위상을 확보하지 못한 채, 핵-상용무력 병진과 같은 고도의 전쟁 수행체계를 갖추 수 있는 군수산업을 구축해 나간다는 것은 단기간에 실현되기 어렵다. 즉, 군수산업이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성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적 기반 사이의 괴리가 크다.

세 번째 장애물은 병진노선에 경제난의 위험이 따른다는 점이다. 북한은 이제껏 핵-상용무력 병진을 추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못했던’ 것이다. 1960년대 국방-경제 병진노선이 군수공업에 치중된 경제구조의 왜곡을 초래하여 훗날 경제난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이를 교훈으로 하여 북한은 재래식 무기보다 가성비가 좋은 핵무기 개발에 집중하기로 결심했다. 핵무력과 상용무력을 동시에 증강하면서 경제 건설까지 병행하겠다는 현재의 노선은 자원 제약하에서 경제난 재현의 위험을 안고 있다. 군수부문으로의 자원 집중이 지속될 경우 민수경제의 위축과 주민 생활의 압박이 다시 심화될 수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군수산업을 지탱하는 국가 경제 기반 자체를 흔드는 자기모순으로 귀결될 수 있다.

26) 『중앙일보』(2026. 2. 3).

IV. 정책적 함의

2021년 1월 발표된 제8차 당대회 계획은 전 세계가 코로나 19로 문을 닫았고, 북한의 국경이 가장 굳게 닫혔 있던 시기에 발표됐다. 이로 인해 계획 달성은커녕 북한의 경제는 매우 큰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러우 전쟁이 발발할 때까지만 해도 북한이 그 전쟁을 통해 계획 달성과 군수산업 발전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 짐작한 전문가는 거의 없었다. 파병설이 돌때에도 전투병 파병은 아닐 것이라는 예측이 더 많았다.

이처럼 우리는 여전히 북한을 정확히 알지도, 예측하지도 못한다. 실증적인 데이터 파편적으로나마 있다 할지라도, 이를 토대로 전체를 짐작하거나 전망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북한에 대한 정책 연구는 제한된 데이터에 의존하여 결론을 단정하기 어렵다. 가장 낙관적인 가능성부터 가장 위험한 가능성까지를 열어두고, 각 가능성에 대하여 한국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북한이 주어진 국내외 여건을 잘 활용하고, 제9차 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군수산업의 재도약을 이룰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러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한국에 가장 위험한 가능성은 외연이 더욱 확장된 대외 협력을 통해 자원과 유류의 한계를 극복하여, 북한이 경제적 부담을 일으키지 않고도 군수산업의 재도약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로써 얻게 되는 무기체계가 한국을 위협하는 수단의 종류를 수직적으로나 수평적으로 다양화하게 되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군수산업을 가능케 하는 자원과 유류의 조달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한 대비는 군사적인 위협이 형성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모든 요소들에 대한 폭넓은 식별과 추적이 필요하다. 이는 외교, 정보, 군사, 경제뿐 아니라, 금융, 정보(첩보), 법집행까지 북한의 군수산업을 지탱하는 다양한 요소들²⁷⁾을 포함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식별하고 추적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추적은 자원과 유류의 유입 경로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이 러시아, 이란 등과 함께 이른바 ‘권위주의 국가들의 무기고’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의 무기 수출 경로 역시 병진노선의 경제적 제약을 상쇄하는 통로로 기능할 수 있다. 무기 수출로 얻는 외화가 늘어날수록 북한은 민수경제를 희생하지 않고도 군수산업에

²⁷⁾ 해당요소는 DIME(diplomatic, informational, military, and economic)에 FIL(finance, intelligence, and law enforcement)을 추가한 것이다. Rodriguez, Walton, and Chu(2020).

자원을 투입할 여력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원 유입 차단 못지않게 잠재적 수입국에 대한 제재 조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 시장을 제한하는 데에도 주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UN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기능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사실상 마비된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를 대체할 다자적 감시 체계의 신뢰성을 높이는 작업이 시급하다.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 MSMT)과 같은 비(非)안보리 기반 감시기구가 현재 작동하는 유일한 대안이다. 한국은 MSMT의 참여국을 늘리는 노력에 앞장서고, 참여국들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정교화함으로써 제재 무력화에 따른 감시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상용무력 발전의 한 축으로 남부국경 화력태세의 자동화, 장거리화, 초정밀화를 명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정보 추적과 국제 공조만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또한 군수산업 전반에 대한 추적보다 더욱 빠른 시간 내에 추적 및 대처가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다. 이는 군사분계선 일대에 실전 배치될 대남 화력자산의 질적 고도화를 의미하므로, 한국 역시 대화력전 능력과 조기 탐지 및 요격 체계를 포함한 자체적인 대응 태세를 재점검하고 보강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정원, 「국정원, 북한 특수부대 러-우크라 전쟁 참전 확인」, 보도자료, 2024. 10. 18.
- 조남훈, 「비핵화 및 경제건설 총력집중전략에 따른 북한 군수공업의 성과 및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9년 2월호.
- _____, 「새로운 국가전략노선에 기반한 북한 군수공업의 변화 및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20년 1월호.
- 통일부, 「월간 북한 동향」, 2022년 1월, p.19.
- 홍민, 「김정은의 ‘대한민국 주적’ 규정 및 중요군수공장 현지지도 분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2024. 1. 11.
- _____, 「북한 김정은 중요 군수공장 현지지도 분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2023. 8. 17.
- Corrado, Jonathan and Markus Garlauskas, “The Arsenal of Autocracy: How North Korean Weapons Fuel Conflict—and How to Stop the Flow”, *Foreign Affairs*, 2024. 2. 15.
- 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 (MSMT), “Unlawful Military Cooperation including Arms Transfers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2025. 5. 29.
- Rinaldi, Jake, “North Korea in Ukraine: Analyzing Authoritarian Cooperation”, US Army War College, Strategic Studies Institute, 2025. 3. 18.
- Rodriguez, Cesar Augusto, Timothy Charles Walton, and Hyong Chu, “Putting the “FIL” into “DIME”: Growing Joint Understanding of the Instruments of Power”, Joint Force Quarterly 97, April 1, 2020.
- 〈웹사이트〉
- The New York Times*, “North Korea Gets a Weapons Bonanza From Russia”, 2025. 5. 31.
-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Fails to Extend Mandate for Expert Panel Assisting Sanctions Committee o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ext Rejected on Account of Veto Cast by Russian Federation”, March 28, 2024.
- UNSC, “Supply, Sale or Transfer of All Refined Petroleum Products to the DPRK”

『뉴시스』, 「북한, UN 안보리 규제 7배 넘는 정제유 몰래 들여와…중·러 수입 추정」, 2026.

6. 7.

『테일리NK』, 「평북·자강도 군수공장 ‘풀가동’…무기 생산 전력투구 왜?」, 2025. 3. 4.

『서울경제』, 「생산량 4배 급증한 북한산 포탄, 러시아가 썼다」, 2025. 5. 8.

『연합뉴스』, 「러시아가 쏘는 북한제 단거리미사일 정확도 상당히 개선」, 2026. 6. 21.

『자유아시아방송(RFA)』, 「북 군수공장, ‘152밀리 포탄’ 생산 박차… 러시아 지원용?」, 2024.

7. 26.

『중앙일보』, 「김정은 선택한 곳만 밤 밝아졌다…북한 ‘불야경 4곳’의 비밀」, 2026. 2. 3.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요무기체계를 생산하고있는 군수공장을 현지 지도하시였다」, 2022. 1. 28.

_____, 「주체적 국방공업 발전의 최전성기를 마련하시려」, 『류경』, 2022년 5월 7일.

_____,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북중기계연합기업소와 중요군수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2023. 9. 3.

_____,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서 한 개회사」, 2026. 2. 20.

_____, 「군수로동계급이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 드리는 600mm대구경방사포증정식 성대히 거행」, 2026. 2. 19.

_____, 「조선로동당 총비서 선거와 관련한 제의서」, 2026. 2. 23.

_____, 「불굴의 개척투쟁으로 전취한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새로운 려정의 줄기찬 전성과 도약으로 이어나가자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 관한 보도」, 2026. 2. 26.

_____,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총국 대구경방사포무기체계시험사격 진행」, 2026. 1. 28.

_____,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요군수공업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2026. 5. 8.

_____,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여러군수공업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2026. 5. 13.

_____, 「신형다목적구축함 《최현》 호 취역식 성대히 진행」, 2026. 6. 24.

_____,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방과학연구기관들에서 조직한 중요무기시험을 참관하시였다」, 2026. 6. 26.